



국내 친환경 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물박람회의 국내 대표브랜드!

지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열린 2004 WATER KOREA는 개최 3년 만에 처음으로 관람객 2만명을 돌파하는 신기원을 이룩했다. 더불어 물산업이 석유산업을 추월한다는 예측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국내 물산업의 현 주소를 총망라했다는 점에서 국내 물산업의 진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제 그 나홀간 한발 벌을 뜨겁게 달군 2004 WATER KOREA 행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2004 WATER KOREA in DAEJEON



‘친환경 산업의 현주소를 한 눈에...’ 친목과 화합의 축제의 장이 된 WATER KOREA!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04 WATER KOREA는 길지 않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물박람회의 대표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상수도 업계는 물론 전국 지자체의 환경관련 공무원, 관련 학계를 가릴 것 없이 WATER KOREA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거나 기술 교류의 폭을 넓히는 한편,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이다.

지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대전무역전시관(KOTREX)에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하였다. 특히 공무원 관람객수는 전체 관람객의 65%에 이르는 1만3천여명으로 추산되었다.

이 같은 관람객수는 지난해 1만6천명보다 35%, 원년 행사의 1만2천명보다 무려 80% 급증한 것으로, 전국 상수도인의 관심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자체 단체장들의 WATER KOREA 유치 경쟁도 해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서 열린 2004 WATER KOREA는 전국 상수도인들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서 앞으로 본 행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여실히 보여준 행사였다. 특히 국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내 상수도 관련 업계 및 학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선보이는 신기술의 경연장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새삼스럽게 거론하지 않아도 3회째의 행사를 통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올 들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상수도 기자재의 최대 수요자인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시 제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특히 공무원 관람객들은 의례적인 전시회 관람에 그치지 않고 참여업체의 부스를 돌면서 각 회사의 제품을 비교·분석하고 신제품에 대해 요모조모 따져 물어 보는 등 진일보된 환경기자재에 대한 지식 습득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향후 기자재 구입의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참관태도 변화는 앞으로 WATER KOREA가 실질적인 구매의 현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2004 WATER KOREA의 양적인 성장은 참관객 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실제로 4일간 관람객수가 2만1천5백12명으로,

복지와 환경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최대의 물박람회를 유치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성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WATER KOREA가 지역경제에 수십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5 WATER KOREA 행사의 유치를 위해 지난해 각 지자체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광주광역시와 차기 개최도시로 선정되었던 사실은 본 행사의 가치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2004 WATER KOREA의 주행사인 국제상수도전시회에는 7개국, 133개 업체, 422개 부스가 참가해 단일기자재전시회로는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했다.

참여업체들 또한 좀 더 나은 제품, 좀 더 기술력을 갖춘 제품들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으며, 업체와 제품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시회 기간동안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경쟁이 치열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리고 2004 WATER KOREA는 단순히 제품 전시회에 그치지 않고 학술세미나, 상·하수도기능 경진대회, 족구대회, 상수도인의 밤 행사, 시설 견학 등 풍부하고 다양한 연계행사를 곁들임으로써 정보 교류는 물론, 전국 상수도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그야말로 국내 최대의 물박람회로서의 제 역할에 충신했다. 

한발벌을 달군 4일... 풍성한 단위행사에 “好評”

WATER KOREA 행사는 단순히 기자재 전시회만으로 구성된 행사가 아니라 전국 상하수도인들의 화합과 정보교류를 위한 축제 한미당 만큼 다양한 단위행사들로 알차게 구성된 국내 최대의 물박람회였다. 그럼 이번 2004 WATER KOREA 행사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었던 각 단위행사들은 어떠했는지 들여다보자!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대덕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에는 학계,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 1천5백여명이 폭넓게 참석해 국내 최대의 전문 상하수도 세미나로 자리매김했다. 세미나 콘텐츠도 풍부해 이 기간동안 총 3백 6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된 상하수도 업무개선사례발표회는 협회가 상하수도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지자체 회원들의 업무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 발표를 통해 종사자들의 업무능력향상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현장경험과 사례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해 마련하였다. 이 발표회에 상수도 25편, 하수도 9편 등 총 34편의 업무개선 사례가 발표돼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대전무역전시관 야외전시장에서 열린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는 각 지자체들간의 열띤 경쟁의식으로 흥미진진하게 진행됐다.

상수도 기능경진대회는 스테인리스, HI-3P 등 2개 조로 나뉘어 가정용 급수관을 어느 팀이 보다 빨리, 더욱 정확하게 연결·시공하느냐를 겨루는 경기였다. 스테인리스 부문은 대전광역시, HI-3P 부문은 강원도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하수도 기능경진대회는 직경 2백50mm의 하수도 본관에 직경 1백50mm의 가정용 배수관을 연결하는데 신속성과 정확성을 가늠하는 경기로, 도(道)단위에서는 전라남도가, 특·광역시 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상하수도인 한마음 족구대회 대전무역전시관 옆 운동장에서 상수도과 하수도 부문으로 구분해 총 33개 팀이 참여한 한마음 족구대회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리기에 충분했다. 특·광역시 대항에서 상수도부문은 한국수자원공

사가, 하수도부문은 인천광역시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으며, 도(道) 대항의 상수도부문은 충청북도가, 하수도부문은 전라북도가 시상대의 맨 위에 올랐다.



상하수도인의 밤 행사 전국 상하수도인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마련된 대전광역시 초청 상하수도인의 밤 행사가 11월 2일 오후 5시 대전 유성관광호 호텔에서 객결호 환경부장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원로 상하수도인 등 2백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졌다.



2004 협회 정기총회 11월 2일 오전 10시 엑스포과학공원 내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허남식 협회장(現부산광역시장), 박선숙 환경부차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특·광역시 본부장, 업체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 자랑스런 상하수도인 유공자를 표창하고 2005년도 사업계획 및 본 예산을 승인했다.



물사진 전시회 대전무역전시관 야외에서 열린 물사진 전시회에는 '물'관련 전문가의 작품 사진과 시민들의 디지털 사진 등 총 1백점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참관객 동선에 따른 사진배치를 통해 참관객 및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협회 이미지 고양에 한 몫을 했다는 평이다.



기타 행사 이밖에 대전광역시의 상·하수도 시설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설견학, 그리고 협회와 일본하수도협회(JSWA)와의 교류회도 행사기간 중에 진행됐다. ☎